트랜스로컬리티로서의 ‘나쁜 여자’와 ‘불평등 정당화’의 남한적 특수성*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김복순**

1. 상시화 된 예외상태 하 ‘나쁜 여자’ 프레임과 세 개의 정의
2. ‘나쁜 여자’의 제 계보와 불평등 정당화의 ‘방법’
   2-1. ‘자유’부인: 여성의 자유 및 여성노동에 대한 냉전자유(민주)주의의 정당화
   2-2. 여간첩: 세계냉전체제의 모순 및 민족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2-3. 양공주: 미군 주둔(점령군) 및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2-4. 팜므 파탈: 구원에 대한 젠더 불평등의 정당화/해소
3. 불평등 정당화의 ‘젠더 전유’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50년대 소설 중 이념, 인종, 계급, 점령(군), 자산, 능력 등을 그 자체로 문제설정한 소설은 거의 없는 반면, 나쁜 여자(아프레 걸 포함)를 화두로 제시한 소설은 왜 그리 많은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1950년대 소설은 특히 ‘여성’ 범주를 ‘나쁜’이라는 서사적 정의와 연결시켜 그리고자 하였을까. 본고에서는 ‘나쁜 여자 프레임’이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단순히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불평등 정당화’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상시화 된 예외상태’라는 남한적 특수성

* 이 논문은 대중서사학회 2015년 여름 콜로키움(2015.8.2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명지대 교수

www.kci.go.kr

및 세계냉전체제와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소설에서 나쁜 여자로 지목된 대표적인 대상은 자유부인, 여간첩, 양공주, 팜므파탈(마녀)이었다. 이 대상을 다룬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불평등 정당화'의 제 요인 중 다른 요인이 '젠더'로 환원·전유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 '노동' '국민국가' '세계냉전체제의 체제이념' '미군 주둔(점령군)' '구원' 등의 문제설정은 그 자체로 논의되지 못하고 '소거' 되었다. 자유, 노동, 세계냉전체제의 체제이념, 점령군, 구원 등의 문제설정이 '나쁜 여자'로 환원·전유되었고, '나쁜 여자'는 자유·노동에 대한 젠더 불평등, 점령군에 대한 민족적 불평등, 세계냉전체제의 체제이념적 불평등, 구원에 대한 젠더 불평등 등을 정당화 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즉 '나쁜 여자' 프레임은 여러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거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작동하였다.

불평등 정당화의 '젠더 전유' 방법은 세계냉전체제 하의 '분단자본주의-가부장제' 사회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유용한 '방법'이었으며, 1950년대의 남한적 특수성을 보여 준다.

(주제어: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로컬리티, 나쁜 여자, 자유부인, 양공주, 여간첩, 팜므파탈, 불평등 정당화, 서사적 정의, 냉전자유주의, 여성노동, 상시화 된 예외상태)

1. 상시화 된 예외상태 하 '나쁜 여자' 프레임과 세 개의 정의

나쁘다,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오를 말한다기보다 일종의 가치판단으로서 '정의'의 문제를 내포한다. 더구나 나쁘다, 좋다가 '여자'와 결합할 경우 그것은 이성적 판단이기보다 일종의 프레임 역할을 한다. 프레

www.kci.go.kr

임이란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치판단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보여준다. 프레임 이론(frame theory)은 이성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항의하는 새로운 관점[1]으로, 인간이 항상 이성적 선택을 하는 존재는 아님을 알려 준다. 다시말하자면 나쁜/좋은 여자라는 이항대립적 개념 속에는 '비(반)이성적 선택' 또는 '반(비)정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여자'는 서사상에서 '나쁘다'고 지목되어 모종의 처벌을 받는 여자를 의미한다. 요부, 악녀, 마녀도 이에 포함되는데, 대개 남성들의 기득권 유지를 방해하는 여자,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여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자[2] 등 남성들이 주도하는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인물들이다.[3][4] 물론 단순히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지만,[5] 무엇을 악으

1)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 모음, 2013, 161~163쪽.
2) 우에노 지즈코, 나일등 옮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48쪽. 여기서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 차별'을 '혐오'라는 문제설정으로 접근한다. 이럴 경우 의도적 차별과 비의도적 차별이 모두 동일시 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한다. 비의도적 차별은 '혐오' 기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잡지 『사상계』는 여성특집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은 없지만, '여성혐오'를 표출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여성차별'에 둔감했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여성을 혐오'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장준하는 물론, 함석헌은 '창부'인 '수난의 여왕'을 통해 한국의 예속된 '고난의 역사'가 대속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창부를 '세계의 하수구'로 표현하면서도 여성혐오로 접근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2013.
3) Marianne Hester, *Patriarchal reconstruction and Witch-Hunting,* London, 2002.
4) 유럽에서의 마녀사냥의 경우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마녀 목격자 및 고발자를 비롯하여 수색인의 상당수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여성은 남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로 간주할 지 않을 지는 서사상의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정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법적 정의, 사회적 정의, 서사적 정의가 그것이다. 이 셋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악'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에도 '법적 죄'의 양상과 '사회적 죄'(윤리적, 도덕적 죄)의 양상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법이란 '죄'를 명명하고 개념화 한 것으로서, 한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법은 한 사회의 보편적 믿음 체계를 의미하며,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making),[6] 사회적 죄로만 보는 경우, 또 사회적 죄이자 동시에 법적 죄로 보는 경우, 사회적 죄라 하기는 어려우나 법적 죄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7][8] 따라서 어떤 것을 '악' '죄'로 보느냐의 '정의관'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법적 정의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사회적 정의 개념에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정의 등을 포함시키면서, 서사상에서 이들이 묘사되는 방식을 검토하여, '악' '죄' '평등/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나쁜 여자 프레임은 때론 가부장제와, 때론 국가・자본・이념과 연결

5) 애덤 모턴, 변진경 옮김, 『잔혹함에 대하여』, 돌베개, 2015, 24~25쪽.
6) 알랭 쉬피오, 박재성・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7~8쪽.
7) 김복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1쪽.
8) 법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 즉 '유죄'는 윤리적 의미의 죄(sin) 및 기독교적 의미의 원죄(original sin)와는 매우 다르다. 법적으로 무죄라 함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 또는 유죄임이 입증되었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과 윤리적 도그마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윤리적 인간'은 서로 다르다. 김복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9~10쪽.

www.kci.go.kr

되어 작동하기도 한다. 또 때에 따라서는 성적 욕망과 결부되어 작동하기도 한다. 프레임이라는 방식을 통해 여성은 개념과 도덕에서 우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며, 불평등하면서도 평등한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불평등이 '특정 입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프레임이 '지정'한 정의에 의해 좋고/나쁨이 갈린다는 점에서, 나쁜 여자 프레임의 핵심은 '배제'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말은 과연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또 같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와 얽혀 있다. 실제로 같고 다름의 기준, 같게/다르게 대하는 기준(평등/불평등)은 시대별, 문화별로 다르다. 사회적 정의를 이루려면 의회형식 등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스스로의 특정 제도들이 필요하며,[9] 사회적 정의의 추상적 원칙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존재한다.[10] 서사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수용(반영)하는 방식으로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수용(반영)이든 거부든, 그것이 어떤 집단의 '합의'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형상화는 평등/불평등의 문제 및 정의의 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요인까지 내포할 수 있다.[11]

---

9) 토마 피케티,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506쪽.
10) 토마 피케티,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572쪽.
11) 토마 피케티의 분석에 의하면, 19세기 발자크(『고리오영감』 등) 및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성과 감성』 등)들은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필요한 세계를 묘사'했으며, 최근의 미국 사회(소설・드라마 포함)는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능력주의로 정당화 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역설한다(496~498쪽). 또 '민주적 근대성'이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보다는 '정당'하다는 믿음에 토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292쪽). 이러한 믿음(사회적 정의)에 따라 형상화 할 경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자산가 지주 가문의 아들이, 대대로 가난해 교육받지 못한 결과 적은 보수밖에 받지 못하는 사회현실에 저항하는 하층민을 해고하였다면, 이는 불평등을 정당

www.kci.go.kr

그동안 정의론에서 '여성'은 대체로 배제되어 있었다.[12] 남성의 인식 및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의론 안에서는 여성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식되기도 어렵다. 기존의 정의론들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정당화 하거나 그것을 비가시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정의의 고려 범위를 벗어난 곳에 위치시켰다. 정의론에 젠더 관점이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소이에서이다. 남성의 삶을 표준적 인간의 삶으로 설정하여 구성된 제반 이론들을 일반적, 보편적이라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지배자의 정의가 함유한 '일면적 정의'로부터 벗어나 피지배자의 시각을 요청한다. 피지배자란 여성, 장애인, 노동자, 아동 등 주권 권력으로부터 '생명'(권리)을 빼앗긴 자들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의란 피지배자의 문제의식을 기각하거나 저항해 온 논변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일종의 인권의식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와 같이 '상시화 된 예외상태'의 경우 서사적 정의는 중층적으로 은유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을 수 있다. 해방 후 냉전의 시작은 잔인한 내전과 예외적 형태의 정치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억제되지 않은 현실'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으며, 조르조 아감벤이 '예외상태'라 부른 것, 즉 정치질서 원칙으로서의 법치의 유예와 유사한 영속적인 조건을 초래했다.[13] 정부수립 전후 국가보안법(1948·1949·1950)과 계엄법(1949),[14] 한

화 하는 것이라고 피케티는 주장한다.

12) 김복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여성문학연구』 제34호, 2015, 7~37쪽; 仲正昌樹, 『ポストモダンの 正義論』, 筑摩書房, 2010, 1~242쪽; 有賀美和子, 『フェミニズム正義論』, 勁草書房, 2011, 1~126쪽; 山根純佳 外, 『正義, ジェンダー, 家族』, 岩波書店, 2013, 1~308쪽.

13) 권헌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7쪽.

14) 강성현, 「한국의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사회와 역사』 94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87~128쪽.

www.kci.go.kr

국전쟁 발발 직후에 선포된 비상사태 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50),[15] 해방직후 공보부・처의 활동을 비롯하여,[16] 카를 슈미트의 독재론에 의거해 선포된 유신체제, 심지어 한국전쟁에 관한 유엔의 결정과 개입도 예외상태적 성격을 갖고 있다[17]고 규정되기도 한다.[18] 반공주의에 대한 성찰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19] 이러한 부분들은 세계냉전체제라는 '트랜스내셔널'의 측면과 동시에 '트랜스로컬'의 측면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해방 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의도적 조작[20]은 냉전체제 하 미국의 세계전략, 즉 동아시아를 산하에 둔 제국적 질서구축, 즉 세계냉전체제 구축과 관련되어 있다.[21] 해방후 미국은 군사—경제적 헤게모니를 지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 하였고, 미국의 점령국들은 미국의 전략하에 연동하는 '제국'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다. 한반도는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계체제의 하부로 편입되었다. 외적으로는 냉전, 내적으로는 분단이라는 규정성이 작동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22] 다른 나

15) 김학재,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사회와 역사』 91집, 한국사회사학회, 2011, 217~254쪽.
16) 김학재, 「정부수립 전후 공보부・처의 활동과 냉전 통치성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7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61~97쪽.
17)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194~196쪽. 유엔의 전쟁 개입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기준은 국가간 전쟁이면 정당하고 내전이면 부당한 개입이 된다고 언급한다. 저자는 한국전쟁의 사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 예외상태'라고 진단한다.
18) 이철호,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1, 1~275쪽.
19)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9호에서는 긴급조치에 대해 언급, 비판 자체를 불법화 하고 있다.
20) 마고사키 우케루, 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메디치, 2013, 11쪽.
21) 요시미 슌야, 오석철 옮김,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 2008, 6쪽.
22)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0집(1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9, 290쪽.

www.kci.go.kr

라와 다른 특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세계냉전체제로 인해 이전과 달리 세계의 주요모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통화・금융면에서는 달러체제를, 생산・기술면에서는 초독점체제를 성립시켰으며, 미국의 군사산업은 초독점체제의 핵심에 해당되었다.[2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를 '아메리카냉전체제'[24]라 부르기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초독점제제가 1991년 소련의 몰락 후 미국의 '일국 패권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점령국들이 '제국'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해방후 남한의 제 부면은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 즉 제1세계와 제3세계를 별개의 독립체로 다룰 수 없고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망에 주목해야 하며, 일국적 관점이라는 지적 경향에서 벗어나 전세계적 이론적 구조틀에서 이해・분석되어야 한다.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이란 인식틀은 '제국'을 바로 이해하고 '제국'의 지배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새로운 이론적 위상을 창출하는 것이다.[25]

지금까지의 냉전 연구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미소갈등의 세계화 과정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나, 최근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냉전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기는 했으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관례로 이루어진 체계였기 때문에, 냉전에 대한 글로벌한 추상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상반되는 다양한 역사적 실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23) 湧井秀行, 『ポスト冷戦世界の 構造と動態』, 八朔社, 2013, 1~150쪽.
24) 湧井秀行, 『ポスト冷戦世界の 構造と動態』, 八朔社, 2013, 1~150쪽.
25) 심사과정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과 트랜스로컬리티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양자는 일국적 경계 및 근대성의 경계를 넘어서 관계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탈식민적, 탈국가주의적, 탈냉전이데올로기적, 탈세계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해방・연대의 계기 및 대안가능성 모색의 계기로서 '로컬'이 위치지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www.kci.go.kr

것이다.[26] 이러한 관점은 '복수(複數)로서의 냉전'을 설정하고 제3세계의 관점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냉전사가 웨스테드(Wested)의 말처럼 "어떻게 반식민주의 운동이 초기 냉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했으며, 제3세계 지도자들이 냉전의 경쟁적인 이념 중 하나와 연합했거나, 아니면 양자와 모두에 반대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27]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냉전성은 미/소가 서로를 없어지거나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위치시키면서 미/소 간에 상호 적대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 상호 적대성의 토대 중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전후 남한에서의 내적 외적 통치성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상호 적대적 정체성은 미/소, 남/북, 반공주의/공산주의의 이분법적 대립구조에서 전자는 옳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냉전적 사유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선/악으로 위치시킨다. 타자로서의 후자는 '나(우리)'의 부정어가 되고, 나(우리)의 정체성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재구성되는 연쇄적 고리가 형성된다.

'나쁜 여자'는 바로 이러한 냉전적 사유의 핵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

26) 권헌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256쪽;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 2015, 1~318쪽.

27) 냉전연구의 관점이 전통주의→수정주의→탈수정주의→현실주의→구성주의/문화주의→세계체제론, 제3세계론, 지역사로 변화되었다고 본 연구자가 있다. 김학재,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18쪽. 이 논문은 좀 더 나아가 '전쟁으로서의 냉전'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평화 기획으로서의 냉전'이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로만 볼 경우 20세기 국제질서와 제2차 대전후의 국제질서를 단절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연속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냉전의 저변에 홉스적 평화기획이 자로 잡고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사회적 '평화'개념을 전개한 뒤르켕적 사상을 대안적인 평화의 철학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17쪽.

www.kci.go.kr

깊이있게 천착될 필요가 있다. ‘나쁜 여자’라는 정의의 방식은 성별이원제 젠더 질서에 존재하는 ‘핵’으로서 중세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상시화된 예외상태’ 하 특히 1950년대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나쁜 여자’라는 정의의 방식이 어떤 ‘불평등 정당화’의 방식으로 형상화 되면서 ‘서사적 정의’를 구현하는지는[28] 아직 연구된 바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프레 걸’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기의 징후’로만 분석한 한계가 있다.[29] 이 과정에서 1950년대라는 트랜스내셔널－로컬 한국사회가 민족, 국가, 인종, 계급 ,젠더의 여러 범주 중 어떤 범주를 ‘불평등 정당화’의 요인으로 채택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나쁜 여자’ 프레임은 이에 대한 적실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라는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성’이 특정한 무엇인가와 특권적으로 결합되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여 ‘나쁜 여자’ 프레임의 역사성을 밝히는 동시에, 전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특정’ 방식이 있었음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28) 흑인 여성 노벨상 수상 작가인 토니 모리슨에 의하면 『허클 베리 핀의 모험』이 미국의 건국 신화에서, 허클베리의 ‘백인성’ 확립을 위해 흑인 도망 노예를 필연적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즉 이 소설은 ‘진정한 미국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의 나라인 ‘미국’의 고귀한 ‘백인 남성성’을 위해 ‘흑인 도망노예’를 ‘위치’시켰다. 즉 ‘근대－민주주의－국가’ 범주와 결합한 것은 ‘인종(백인), 젠더(남성) ‘계급(노예)’ 범주였다.

29) 아프레 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6;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 제18호, 2007;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16호, 2007;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통권 3호, 2003; 이영미, 『1950년대 대중적 예술에서의 신파성의 재생산과 해체」, 『한국문학 연구』 제34집, 2008;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개념과 문화」, 『한국문학연구』 제35집, 2008;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방식」, 『어문연구』 제14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를 들 수 있다.

www.kci.go.kr

2. '나쁜 여자'의 제 계보와 불평등 정당화의 '방법'

2-1. '자유'부인: 여성의 자유 및 여성노동에 대한 냉전자유(민주)주의의 정당화

『자유부인』[30]은 오선영이라는 여성을 자유주의의 '자유'에 잘못 물든 '나쁜 여자'로 지목한다. '자유'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파리양행에 취직하는 등 '밖'에 나가 노동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며, 밖으로 나돌다 보니 춤바람도 나고 불륜을 저지르는 상황에까지 다다랐다고 진단한다. 『자유부인』은 '밖으로의 이동'이 여성의 활동영역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간 『자유부인』 연구에서는, 전후의 남한에서의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기의 국가주의 기획, 탈식민 민족주의자의 근대 기획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미국적 근대' 지향의 신식민주의 프로젝트와 민족국가 프로젝트의 상호 충돌양상, 그 속에 스며있는 젠더정치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검토된 바 있다.[31]

하지만 해방후・전후가 트랜스내셔널의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유부인』을 일국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 및 그 이념적 토대인 냉전자유주의와 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매카시 선풍, 그에 기반한 젠더정치학 등 일국적 차원과 세계 냉전체제적 차원을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트랜스내셔널

30) 1954년 1월 1일~8월 6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1954년 상권이 출판되었을 때는 초판 3천부가 당일로 매진되었고, 대본소에서도 보통 1종 당 2~3권을 갖춰 놓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자유부인』은 50권 이상으로도 부족했다고 한다. 양 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1-자유부인」, 『한국일보』, 1981년 1월 23일자.

31) 자세한 내용은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9호, 대중서사학회, 2003;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2004 봄・여름호, 문학과영상학회, 2004; 이영미 외, 『정비석 연구』, 소명출판, 2013.

www.kci.go.kr

및 트랜스로컬의 양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논의에서 『자유부인』은 일민주의, 반공주의, 전후 국가국가 수립 등의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국가주의(일민주의, 반공주의)에 반하는 모든 모순체계는 혼란을 야기하는 파국과 위기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조성된 남성들의 불안심리에 기초하여 '공포와 위기의 정치학'을 수립해 낸다. 작가 정비석이 '작가의 말'[32]에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정적인 혼란상과 사회적인 부패상을 소설로 그려봄으로써, 참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황산덕 교수가 "중공군 40만명보다 더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고 본 것, 또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샅샅이 파헤치는 이적소설"이라고 비난한 것은 당시 사회의 위기적 징후를 웅변적으로 드러낸다. 국가주의 기획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은 증오의 이름으로 호명되며, 특히 여성은 '나쁜'과 결합되어 서사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1950년대 반공주의의 토대인 일민주의는 개인주의에 대신해서 도의, 윤리를 소중한 덕목으로 내세우며, '국가는 가정의 확대이고, 민족은 가정의 연장'이라는 국가관을 지니고 있었다.[33] 따라서 바람난 여자로 인한 가족의 훼손은 곧 국가의 훼손이 되고, 가정으로부터의 일탈을 꾀하는 여성은 징치당할 수밖에 없었다.[34]

---

32) 이에 비해 1996년판(고려원)의 작가의 말은 한층 강화되었다. "5000년 동안이나 남성 전제하에서 자유를 억제당하며 억울하게 살아 오던 한국의 여성들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이 기회에 '우리도 자유를 찾아야하겠다'는 생각에서 가정에서 뛰쳐 나와 춤에 미쳐 돌아가는 혼란을… 무비판적으로 개탄만 하며 그냥 내버려 두면, 사회가 파괴되어 버린다. 그러기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역사적인 혼란을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소설로써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 『자유부인』이었다."

33) 서중석, 『한국 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46~48쪽.

www.kci.go.kr

트랜스내셔널의 맥락에서 검토할 경우, 『자유부인』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가) 오늘날 자유부인들이 놀아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허영 때문인 것이다...(중략)... 그런 허영의 괴뢰가 어찌 오선영 여사 한 사람 뿐이랴. 민주주의란 과연 좋은 사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이 혼동되어, 사회질서가 그로 인하여 파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잠시 무시해도 좋으니, **여성 각자에게 지각이 생길 때까지는** 아낙네들을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37-8)[35]

(나) 자유부인도 좋고, 여남 동권도 무방하다. 거세가 민주세상이라면, 남편인들 아내의 권리와 자유를 어찌 부인할 수 있으리오.....그러나 여남 동권 시대라고 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남편의 직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사상이란 나의 영역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인 것이다. 이 문제만은 진정한 민주 발전을 위하여 자유부인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시대적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상226)

(다) 민주사상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무턱대고 민주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뜻하지 않았던 혼란이 생겨난 셈이었다....현모양처이던 여성들이 자유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방종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릇된 민주 사조 때문에 미풍양속이 얼마나 문란해졌던가.

....(중략)...만약 대학교수의 지성으로도 가정 생활의 민주화를 도모할 능력이 없다면 이 나라의 민주생활을 누가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166-7) (밑줄 및 고딕체는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사회질서를 위해 '자유'와 '민주'가 제한될 수 있으며, 남편을 위해 여성・아내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를 위해 민주를 제

34)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2004 봄・여름호, 문학과영상학회, 2004, 32~33쪽.

35) 이하 텍스트는 『자유부인』 상 하, 고려원, 1985를 판본으로 하였다.

www.kci.go.kr

한할 때의 자유・민주 개념은 제한되고 변형된 자유・민주 개념으로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 또는 이해관계 앞에서 부정되거나 축소・제한되는 자유・민주의 개념이다. 이러한 자유・민주・평등 개념은 1950년대 '로컬 남한'(특수성)이라는, 하버마스가 말한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특정 맥락은 세계냉전체제 하의 반공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민주 개념은 냉전 자유주의, 냉전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36]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및 다양성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냉전 자유주의이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체제경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자유주의 실현'으로서의 '자유주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37] [38]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박인수 사건이다. 댄스홀을 무대로 춤바람 난 여대생 등을 70여명이나 농락한 한국판 돈 주앙 '박인수 사건'에서, '법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판결문은 냉전자유주의에서 특히 '제한된 여성의 자유'를 보여준다. 냉전체제의 남한 이승만 정부에서 다양성이 가장 크게 훼손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여성'이라는 범주였다.

제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냉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자체의 실현보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방어적 반공주의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냉전자유주의는 반공주의라는 단일한 목적과 기준에 입각해 자유주의 자체의

36) 박찬표도 냉전 자유주의라 정의한 바 있다.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참조. 반공자유주의, 반공민주주의는 냉전자유주의 및 냉전민주주의보다 하위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37)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냉전지'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85쪽.

38)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1960년대까지를 '전후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김복순,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28~129쪽.

www.kci.go.kr

근본적인 원칙들을 희생시키곤 했다. 즉 반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주의 이외의 다른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관용, 다양성을 박탈했고, 국제적으로는 다른 억압적・비자유주의적 정권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런 모순적 성격 때문에 아블라스터(A. Arblaster)는 냉전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자들에 의한, 자유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간주했다. 나아가 냉전자유주의는 모든 급진적 기획들에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었다는 점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최종적 쇠퇴지점'을 구현해 준다고 보았다.[39]

『자유부인』은 여성의 자유와 민주를 긍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서 자유와 민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여성에게 지각이 생길 때까지는' '아내의 이름으로 남편의 직무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부인』이야기는 중년 여성의 '정체성 찾기' 보다는 '탈선'의 시각에서 접근되었고, '꾸짖고 야단치는' 권위적인 남성젠더－서술자에 의해 '소위 탈선'의 여성들은 엄하게 처벌받았다. 모든 일탈과 방종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행해졌다는 지적[40]도 오선영을 비롯한 화교회 모임의 부인들, 최윤주 등 '여성'에게 주로 씌워졌다. 남성들은 춤바람에 사기, 불륜 등 오히려 여성들보다 서사상에서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남성들은 어느 한 사람 자유와 민주평등이란 잣대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어느 한 사람 처벌 받지도 않는다.[41]

---

39)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125쪽.
40) 유종호, 「자유라는 이름 아래」,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288쪽.
41) 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9호, 대중서사학회, 2003, 270쪽 참조.

www.kci.go.kr

냉전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가장 심하게 처벌받는 인물은 오선영과 최윤주이다. 이 두 경우에서 죽음정치적 요소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성의 자유' '여성노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작가는 오선영으로 하여금 도래한 자유와 평등, 민주 이념을 나름대로 실천해 보게 하면서, 미국식 문화도 접해 보게 한다. 또 여성의 욕망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것이 과연 죄악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한다. 또 교수 월급으로는 결코 여의치 않는 살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해 돈을 벌어야 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사업전략도 필요하며, 고객에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한다.

최윤주에게도 망설임 없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하고, 자아실현의 장에 나서게 한다. 그 결과 소설 전편에 걸쳐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최윤주는 백광진의 '작업'에 걸려 유산이라는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게 되고, 가진 돈마저 다 날리고 경제적 타격마저 입는다. 결국 작가는 최윤주를 자살이라는 마지막 길로 몰고 간다. 남편의 기생 외도를 용서하지 않고 자식들까지 남편에게 주고 이혼한 최윤주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인물이 된다. 작가는 이런 최윤주를 "자기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투쟁"하는 사람으로, "너무 이기주의에 빠진 용감성"(상171)으로 타매하고, "자고로 여자들이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종류가 천태만상이어서, 그 한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하81)다고 비아냥거린다.[42]

오선영과 최윤주에게 자유・평등・민주의 이념은 그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만 동원될 뿐 진정한 삶을 부여하는 '삶정치'가 되지 못한다. 냉

42)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9호, 대중서사학회, 2003, 268~269쪽.

www.kci.go.kr

전자유주의 체제라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 권력'이라면, 오선영과 최윤주의 자유・민주・평등의 실천은 주권 권력에 의해 벌거벗겨진 호모 사케르에 해당된다. 노동의 주체・경제적 주체, 인격적 주체, 문화적 주체, 섹슈얼리티의 주체로 일어서려는 오선영과 최윤주의 인식은 트렌스내셜널리즘의 자장 아래 죽음노동으로 위치지어진다.

예외상태를 만들어내는 주권 권력들은 적을 상정하고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고, 그 적은 벌거벗겨진다. 남한의 냉전자유주의가 세계냉전체제의 하부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오선영과 최윤주는 주권 권력에 의해 이중으로 '벌거벗겨진 생명'이다. 오선영과 최윤주는 조에(zoē)로서 '죽여도 되는 조건으로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호모 사케르이다. 아감벤은 조에를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로, 비오스(bíos)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분한 바 있다.[43]

호모 사케르가 죽여도 되는 상태로 놓여진 이유는 '벌거벗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조에를 비오스화 함으로써 벌거벗은 생명을 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권 권력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본다. '생명 자체의 가치 혹은 무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주권 권력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아감벤은 주권 권력의 생명정치가 조에와 비오스, 외부와 내부, 배제와 포함 등의 경계를 (재)구획함으로써 벌거벗은 생명을 창출하는데 기초해 있다고 지적한다. 오선영은 스스로를 '악한 아내'라 규정, 반성하면서[44] '귀환의 미학' 하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경계를 재구획함으로써 비오스의 영역으로 귀환할 수 있지만, 강하게 여성 주체성을 확립하면서 비오스의 욕망을 꿈꾼 최윤주는 조에로서 '살 가치가 없

43)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368쪽.
44) 정비석, 『자유부인』 상・하, 고려원, 1985, 255쪽.

www.kci.go.kr

는' 것으로 외부로 배제되면서 자살하게 된다.

냉전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오선영의 경제적 주체성을 확인시켜 줄 '파리양행'에서의 노동은 '이기주의'로 해석될 뿐 진정한 '자기성취'나 자유·민주적 권리행사로 판단되지 않는다. 오선영과 최윤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는 노동을 자기성취로 이해하고, 경제적 능력이 곧 자아성취의 지름길이라는 이해가 존재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방식에는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하위직에 묶어두려는 미국적 자본의 간계와 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자유부인』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부인』에서의 '가정으로의 귀환'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로서, 남편/아버지가 바깥일로 돈을 벌고 아내/어머니는 그 대신 가사노동을 맡는다는 '성별 분업'을 보여 준다. 여성노동의 구역을 '안'(가정)으로 구획하면서, '밖'에서의 여성노동은 부정하는 이러한 '부문별 성별 분업'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또한 자본의 요구에 맞춰 여성에 대한 더 많은 경제적 착취를 확실하게 하려는 필요에 따른[45] 것이다. '부문별 성별 분업'에 기초한 가부장제는 눈에 보이는 세계적 차원의 축적체제이다.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여성은 항상 노동계급의 일부였지만, 부문별 성별 분업이 의미하는 여성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로 보는 '가정주부화'의 시선을 확인시킨다. 가정주부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을 연결시켜 논의한 마리아 미즈(Mies)에 의하면, 가정주부화 혹은 노동계급 여성의 가정예속화는 '남성 부양자에게 의존적이며 사랑과 소비만 생각하는 순종적이고 개인화 된 여성이라는 이상[46]'을 함의하고 있다. 당시 발간된 『여원』『여성계』 등의 여성잡지들은 '주부'를 구

45) 피터 커스터스, 박소현 · 장희은 옮김,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시아의 자본 축적과 여성 노동』, 그린비, 2015, 11쪽.
46)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227~245쪽.

www.kci.go.kr

축하면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는데,[47] 『자유부인』에서 서술자는 여성의 '위치'를 '가정'으로 제한하면서 오선영을 가정으로 돌려 보낸다.

이런 의미에서 오선영과 최윤주의 여성노동은 죽음노동이고 『자유부인』은 오선영과 최윤주에게는 '죽음정치'(necropolitics)가 된다. 죽음정치란 주권 권력이 피지배자나 노동자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고 마치 소모품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사용하면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 '쓸모없어진 존재'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죽음노동의 특징은 트랜스내셔널 냉전체제를 위해 행해지는 '대리'노동이고, 다른 것과 '대체불가능'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원'되고 '이동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런 죽음정치적 노동은 극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즉 죽음정치는 섹슈얼리티와 인종의 영역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발생할 때 특징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작용이다.[48]

오선영과 최윤주가 '비오스' '국민 주체' '재건 주체'가 되는 방법은 '처벌'을 받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대체불가능성, 재건의 대체불가능성이 작동하고 있다. 이후 각종 소설 및 드라마에서 경제적 주체성, 노동의 주체성을 지닌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나쁜 여자'로 정의되곤 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은 오랫동안 '죽음노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서 여성이 국민이 되는 방법은 여성의 자유 및 여성노동의 제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이러한 제한(불평등)이 '필요'하다는 '불평등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는 오선영이 자신을 '악한 아내'라 반성하

47)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참조.

48) 이진경, 나병철 옮김,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33~89쪽; Marina grzinic · Sefik Tatlic, *Necropolitics, Ratialization, And Global capitalism,* Lexington Books, 2014.

www.kci.go.kr

며 집으로 귀환하는 장면에서 극대화 된다.

한편 여성성=공산주의성이 되는 공식화의 길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자유부인』은 정비석과 황산덕 교수의 논쟁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 논쟁에서 황산덕은 "대학교수를 양공주에 굴복시키고 대학교수 부인을 대학생의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면서, "스탈린의 흉내"를 내는 작가의 고집으로 "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조국의 적"이라고 공격하였다. 황산덕은 매카시즘적 수사법을 태연하게 동원하는데, 이 말은 작가 정비석을 '빨갱이같은 한국사회 파괴범'이라고 은유한다.[49] 당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은 '적' '빨갱이'로 매도되었는데,

> (라) 실로 공산당 이상으로 무자비한 일이었다. 여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자비한 일면이 있는 반면에 모질게 무자비한 일면도 있다. 육이오 동란 때에 대한민국에는 급조 공산주의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여성 친구들이었다. (상125)

> (마) 비록 남녀 동등의 민주시대는 되었다 하더라도, 현대 여성일수록 점점 매춘부적 소질이 농후해 가는가 본데요. (상91) (밑줄은 필자)

여기서 여성=괴뢰=빨갱이=매춘부의 등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을 연구하는 철자법 연구회의 장태연교수를 탈식민 민족주의자로 보면서, 탈식민 민족주의자=남성=주체성/ 바람난 여자=(유사)매춘부=빨갱이의 등식을 작동시키고 있다. 위에서 본 자유(민주), 노동 문제뿐 아니라 반공주의라는 이념 문제까지 '젠더' 문제로 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부인』은 반공주의, 노동문제, 여성의 자유를 '젠더' 문제로 환

49) 임헌영,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둘러 싼 공방」,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224~237쪽.

www.kci.go.kr

원・전유하면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춤바람의 문제도 신춘호라는 신세대 대학생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선영 등 '여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장태연－신춘호의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여러 불평등 요인을 '젠더'로 환원하여 수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젠더'는 '불평등 정당화'의 요인으로 작동한다. 즉 냉전자유주의 인식 아래 여성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노동도 적절치 않으며, '자유마저 제한 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서 위치지워져 있다. 『자유부인』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젠더'를 '불평등 정당화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여성은 '예외상태 하의 또 다른 예외상태', 즉 '이중 예외상태'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에서도 불평등 정당화 요인은 민족, 계급 등 다양하게 형상화 되었으나, 1950년대에는 오히려 '젠더'로 수렴・환원되는 '남한적 특수성'을 노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의 지역적 냉전 경험 및 특성은 분단과 전쟁, 미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개발독재로 연구되었는데,[50] 글로벌 냉전의 보편성은 자유와 평등・민주 이념의 냉전자유주의화, 냉전민주주의화라는 점이며, 불평등 정당화의 요인이 '젠더'로 수렴되고 환원되는 점은 글로벌 냉전의 남한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자유부인』은 트랜스내셔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형상화 해 보여 주고 있다.

50) 마상윤, 「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 2015, 67~107쪽. 중국의 경우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은 제국주의 미국에 대항하여 공산주의를 지킨 '항미원조'의 기억, 사회주의 혁명 완수의 기치 하에 이루어진 급진적 정치운동과 관련된 기억 등이 중요하게 남아 있으며, 일본의 경우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는 긍정적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www.kci.go.kr

2-2. 여간첩: 세계냉전체제의 모순 및 민족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녹색의 문』[51](최정희)은 '소녀의 탄생과 낭만적 사랑의 결합'이 간첩 서사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여간첩으로 낙인 찍혔던 김수임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끈 소설이다.

상시화 된 예외상태인 '병영국가 체제' '로컬 남한'에서 간첩보다 무서운 단어는 없었다. 간첩이란 국민국가의 법역이 설정해 놓은 배제의 규칙과 경계 속에 갇힌 존재이다.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또 남한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환기하기 위해 간첩은 적대와 불온성의 타자로서 늘 호명되어야 했다. 국민 단결을 더욱더 공고화 하기 위해 간첩이란 악마는 필요불가결한 존재로서 작동되었다.

세계냉전 체제 하의 반공주의는 간첩을 적과 아(我)라는 이항대립에 기초해 비민족·비국민화 또는 탈민족·탈국민화 하였다. 간첩은 민족·국가·국민의 적대적 타자로 표상되면서 '경계 밖'의 인물이 된다. 간첩은 '우리 안의 적대적 타자'로서 반공주의 정권 유지의 주된 근거인 북한의 '악마성'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다. 북한에서도 '미제 간첩'에 대한 대중적 공포증이 만만치 않음을 상기하면 분단체제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한반도 전체가 '오웰적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2] 따라서 간첩 문제 또한 남한이라는 일국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세계냉전체제와 관련한 트랜스내셔널/로컬 차원에서 분석될

51) 『서울신문』(1953.2.25-7.8)에 1차로 연재되었으며, 정전 후 『여원』 창간호(1955.10)부터 속편인 『흑의의 여인』이 1956년 10월까지 연재이다. 단행본 출간시에는 두 작품을 묶어 『녹색의 문』으로 통칭하였다. 여기서는 최정희, 『녹색의 문』, 삼중당, 1979 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52) 박노자, 「또 하나의 '회색분자', 간첩」, 『근대에 맞서는 근대』, 현실문화, 2014, 79쪽.

www.kci.go.kr

필요가 있다.

간첩이 이처럼 '공론장의 공식적 악마'이다보니, 간첩담론은 무성한데 비해[53] 간첩을 형상화 한 소설은 매우 드물다. 간첩 소설의 경우도 픽션보다는 대부분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다. 픽션에서는 세부 묘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소설 및 드라마를 포함한 간첩담론을 검토하면 이들이 쉽게 젠더와 결합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여성성으로 규정된 육체성・이념・자질 등이 남성의 정치적・성적 판타지와 결합되고 반공주의라는 억압 이데올로기와 중첩되면서 반공주의 여성성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간첩 형상화 '방법'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사적 정의가 배분된다. 즉 남녀 등장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악마성'이 배분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전반후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가 도영혜 유보화들인 예비 여성시민으로서의 소녀(상)의 탄생 및 소녀의 제 규범 과 낭만적 사랑의 연관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애정의 '객체'로서의 소녀에서 사랑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면서, 여간첩 김수임에 해당하는 도영혜와 이강국을 연상시키는 성완수, 사상검사 오제도를 환기하는 김영서를 등장시키면서, 트랜스로컬 안보담론과 가부장제의 결합양상을 보여준다.

도영혜는 남자들을 전전하다가 '**동맹의 주요 간부' 성완수와 함께 '조국 바로세우기'에 동참하게 된다. 도영혜는 남한이 '잘못하면 자본주의 *국의 속국이 될지 모른다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유보화로 초점화된 서술자의 시선에 의해 '공산주의자는 미친 사람들'이고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된

53) 공임순, 「냉전의 육화,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형상과 '최초'의 소계/미제 간첩단 사건」, 『현대문학의 연구』 5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507~563쪽 참조.

www.kci.go.kr

다.[54]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도영혜의 '소위 간첩' 활동에서 '남자－여자－남자'라는 '국제간첩의 전형'이 변형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수임 사건은 남한 사회에서 '반공과 방첩의 극대화'에 공헌하면서 이후 소설 및 드라마, 영화로 수차례 재탄생한 바 있다.[55] 김수임 사건이 베어드(미군)－김수임(남)－이강국(북)으로 이어지는 국제간첩의 전형을 보인다면, 여기서는 김영서(南의 男:반공)－도영혜(여:간첩)－성완수(北)으로 변형되어 있다. '남자－여자－남자'라는 구도는 동일하지만, 남과 북이 상호 타자로서 연결되어 있다.

도영혜가 사랑했고 그 아이까지 가졌던 대상의 남자인 김영서는 식민지 시기에는 반일, 민족적 스트라이크를 행하는 등 영웅적 면모를 보였지만, 필연적 계기도 없이 반공검사로 거듭나 있다. 필연적 계기 없는 변모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재현되어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56]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간첩에 대한 경계 및 좌익에 대한 백색테러 역시 일국적 차원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냉전체제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충성조사법안」을 공포하였고, 국가내부 안전을 이유로 모든 연방 고용인원에 대해 사상검사를 진행하였다. 1948년부터 일련의 긴첩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50년대까지 매카시즘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냉전 초기 미국에서 일어난

54)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 하반기, 220~222쪽.
55)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1970년대 영화 '특별수사본부 여간첩 시리즈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3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47~190쪽.
56)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 하반기, 221쪽.

www.kci.go.kr

이러한 매카시즘 열풍은 이후 남한과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의 저개발 국가에서 세계반공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발생하였고,[57] 미국의 '대지역 구상(Grand Area)' 아래 더욱 공고한 '반공 로컬'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58]

통상 정치공동체에서 가장 심각한 일탈자는 모반자 혹은 적의 편에 서있는 간첩이며,[59] 적과 간첩과 시민을 구별짓는 작업에는 상징 폭력(symbolic violence)과 물리적 폭력이 동시적·무차별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간첩과 관련하여 남한도 예외상태를 적용한 바 있다. 실제로 김수임 사건은 국방경비법 32조의 '이적 간첩죄'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이 법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악법이고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다.[60] 국방경비법에 의해 민간인들까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받았는데, 이 조항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도영혜의 삶과 사랑은 '악녀－간첩－매국노－빨갱이－비국민－미친 사람－비친구'의 의미고리를 형성한다. 김수임 사건에서처럼,[61] 김영서를 향한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 맹목적 사랑으로 개념화되어 애정 규범을 무시한 부정적인 것이 되고, 이로써 도영혜는 전후의 남한 사회가 요

57) 허병식, 「간첩의 시대」, 『한국문학연구』 4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2014, 13~14쪽.
58)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냉전지'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76~78쪽.
59) 김동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2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147쪽.
60) 전갑생, 「비운의 신여성 김수임: 반공이데올로기의 희생양」, 『민족21』, 108~110쪽.
61) 사상검사 오제도는 김수임에 대해 '애정 유죄'라고 말하고 '국제여간첩'이라 단정했다고 한다. 전갑생, 「비운의 신여성 김수임: 반공이데올로기의 희생양」, 『민족21』, 108~110쪽. 또 이 사건을 형상화 하고 있는 전숙희의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정우사, 2002) 역시 모든 맥락을 삭제하면서, 오로지 '사랑'만이 존재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있다.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 하반기, 224쪽.

www.kci.go.kr

구하는 현모양처 범주에서 배제된다. 소설은 도영혜의 무분별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 남자들에게 내쳐지는 것이 '아이 때문'(92쪽)이고, "아이 새끼 때문에 인생 망쳤다"(166쪽)고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이 과정에서 도영혜는 모성 기피의 인물로 부각되며, 새 사회 건설에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악녀'로 배치되고 호명된다. '포도주가 석가·예수'(84쪽)라고 생각하며 '섹스의 황홀감'(85쪽)을 강조하는 도영혜는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주체적이다. 주체적인 여성, 공산주의자 여성, 공산주의자의 가정을 구성하는 여성은 부정되며 악녀의 범주로 배치된다. 여성 공상주의자는 연애에서도 배제된다. 이 소설은 도영혜를 통해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 운동－계급운동'의 반공주의로의 이행 과정이 새로운 악녀의 탄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잘 확인시킨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빨갱이－여성'은 '국민' 또는 '시민'으로 호명될 수 없고, 반공법(예외상태법)에 의해 처벌받은 후에야 '국민' '시민' '재건 주체'로 편입될 수 있다.

『녹색의 문』은 붉은 연애자 또는 성적 욕망에 충실한 여자를 거부하는 반면, 유보화처럼 '고양이 같은 여자'는 낭만적 사랑의 대상 및 주체로 위치시키면서(positioning) 긍정적 시선으로 호명한다. 이는 이념(사상성)과 여성성의 결합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성적 욕망에 충실한 여자－공산주의자를 악녀로 배치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주체 및 운동적 주체의 배제, 이념(사상성)과 여성성의 부정적 결합으로 규정되는 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교육정책 및 언어 정책에 반기를 들며 여성 민족주의자로서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 바 있는 도영혜를 악녀로 등장시키고, 다시 간첩－매국노－빨갱이－비국민의 은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당대 사회의 반공주의화와 호몰로지(homology)이다.[62]

www.kci.go.kr

베어드(미군)－김수임(남)－이강국(북)이라는 국제간첩의 전형이 『녹색의 문』에서 김영서(남:반공)－도영혜(여:간첩)－성완수(북)으로 변형되는 과정은 트렌스내셔널의 남한적 특수성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상황에서 '반공주의 가부장제'를 창출하고 새로운 '악녀'를 창출하여 트랜스로컬 안보담론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미군 소령 베어드보다 오제도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남자 간첩은 '사상'을 가진 자로, 여간첩은 '사랑 때문'이라는 형상화 방식 역시 젠더화를 확인시킨다. 남자 간첩은 '투철한 사회주의 사상가'(이강국, 박헌영, 이현상) '남로당 프락치'(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강철 신념'(이인모), '반(反)외세 통일전사'(비전향 장기수), '진정한 애국자'(리하르트 조르게) 등으로 호명한 반면, 여간첩의 경우 '남편 납치 기도'(수지 킴), '이강국의 정부'(情婦)(김수임), '한국판 마타하리'(현앨리스) 등 '국민국가'라는 공적 장치를 위한 존재라기보다 '가정 내적' 존재로 다르게 의미화 하였다. 비민족・비국민화 또는 탈민족・탈국민화의 적대적 타자화의 형상화에서도 여간첩은 '사상'에서 배제되면서 '아내' '정부'의 입장에서 '사랑' 또는 '섹슈얼리티'로 호명되는 '배제'를 보여 준다. 즉 여간첩은 '상시화 된 예외상태' 하에서도 '이중'의 '벌거벗은 생명'이었다. '간첩'이라는 문제설정은 후경화 되고 '여'간첩은 '사상' '이념' '이론'을 담보하지 못하는 존재로 형상화 하면서, '사랑' 문제로만 접근하는 과정으로 형상화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유포시키면서 '불평등 정당화'의 효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은 미국과 다른 1950년대 남한의 가부장적 시선이라는 점에서 남한적 특수성을 확인시킨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반공주의 안보담론이라는 트랜스내셔널 안보담론과

62) 이상 『녹색의 문』에 대한 내용은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 하반기, 203~234쪽.

www.kci.go.kr

트랜스로컬 가부장제가 결합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간첩은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함으로써 간첩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간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냉전체제의 모순들은 은폐・소거되면서, 미국－남한 동맹체제는 자연스럽게 '동의' 된다. 여간첩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간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간첩 자체에 대해 정당화 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세계냉전체제의 체제이념적 불평등을 정당화 시키는 '방법'으로 작동하였다.

2-3. 양공주: 미군 주둔(점령군) 및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양공주는 아프레 걸의 하위범주로서,[63] 국가 및 민족, 인종 범주의 경계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양공주는 그간 민족적 수치심으로, 불순한 존재로서 비난과 낙인의 상징으로, 또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요부, 남성을 유혹하는 매혹의 기표로서의 팜므파탈, 또는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재현되어 왔다.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64]은 미군과의 사랑 때문에 양공주로 불려지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결국 살해되는 인텔리 여성의 비극을 그려 보여준다. 기지촌이 형성되기 이전, 즉 국가장치의 하나로 기지촌이 운영되기 이전인 1952년 경의 여고생의 양공주화를 보여주면서, 미군의 혼혈아들 토니의 문제도 제시한다. 양공주 및 혼혈아에 대한 생산과정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시선, 민족 내부의 욕망과 의식구조 등을 담아내고 있는

63)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141호, 200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85~288쪽.
64) 1952년 『희망』지에 연재되었던 『광활한 대지』를 개제하여 동학출판사에서 1958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www.kci.go.kr

소설이다.

기지촌은 트랜스내셔널의 맥락에서 미국 중심의 반공주의 안보제국을 유지하는 큰 임무를 맡고 있다. 기지촌이 남한과 미국 두 정부에서 '후원되고 규제되는 체계'[65]로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미군들을 즐겁게 해주는 '특수 엔테테인먼트'로 조직・관리되어 왔다면, 이 소설은 기지촌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의 양공주를 통해, 한국전쟁 동안 군 기지를 좇아 성 노동에 종사했던 양공주와는 다른, 또 하나의 양공주를 통해 남한 사회의 욕망과 작동방식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인텔리 여고생－양공주화－낭만적 사랑을 제시하며,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 구성방식 및 옥시덴탈리즘이 남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 및 특징에 대해 언급한다. 여고생 이차래는 부모들의 뜻에 따라 배곤과 약혼한 처지이지만, 어머니가 미군부대의 빨래를 하게 되면서 캐리 조지라는 미군과 알게 된다. 캐리 조지와의 만남은 차래를 양공주로 호명되게 한다. 차래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헤어질 것을 선포하지만 결국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국제결혼을 한다. 아들까지 낳지만 본국으로 전근해 떠난 캐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까봐 초조해 하다가, 양공주라 업신여기는 사회적 시선과 아버지의 아편중독,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성 등으로 괴로워 한다. 죽을 줄만 알았던 배곤이 돌아 오고, 혼혈아 아들 토니를 결코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배곤의 반복되는 언설에 끌려 토니를 영아원에 넘긴다. 비슷한 처지의 양공주인 정순자[66]와 함께 술을 마시고 푸념하다가 정순자가 타놓은 독약을 마시고 시체로 발견된다.

---

65) 캐서린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20쪽.
66) 정순자는 성 노동자로 일하다 미군과 동거하게 된 유형이다.

www.kci.go.kr

양공주는 외국 군인을 상대로 성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상품이면서 동시에 판매자,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전형'[67]인 창녀 중에서도 양공주는 가장 경멸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다. 함석헌식으로 말하자면 '세계의 하수구'[68]이다.

성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래는 양공주가 아니다. 미군의 합법적인 아내가 된 차래는 양공주들의 일상적 특징이라고 언급되는 '첨단 지위cusp'[69]도 없으며, 남성 유혹자라는 팜므파탈의 성격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차래는 여타의 양공주 소설 또는 「지옥화」 등의 양공주 영화가 기표하는 '위험한 여성'[70]유형이 아니다. 성의 노예로서 수치·불결의 대명사인 도덕적 타락자도 아니며, 돈의 노예도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 '인종간 결혼을 한 한국여성들' 또한 양공주로 간주되었다[71]는 점에서 '의사pseudo 양공주'로서 넓은 범위의 양공주에 속한다.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적 시선은 '미군과 관계된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차래를 양공주로 호명한다.

함석헌에서 양공주는 창부=민족=예수로 등가관계를 형성하면서 '수난의 역사'를 대속할 존재로 부각된다. 수난의 역사를 대속하기 위해 양공주는 '필요'한 존재이다.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양공주가 '불평등의 정당화 요인'으로 위치지어져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점령군'이라

67)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옮김,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240쪽.
68)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4」, 『함석헌전집1』, 한길사, 1989, 330쪽.
69) '첨단 지위'란 매우 다른 두 가지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양공주들의 서구식 의상, 머리 화장 스타일의 모방, 콩글리시 발음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은마는 오지 않는다」에서 양공주가 된 영희는 양갈보의 외모와 행동으로 동네 주민들을 놀라게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된다. "장딴지 맨살 뿐 아니라 엉덩이의 둥근 형태를 그대로 노출시킨 짧은 블루 블랙 치마,…소매 없는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 독특한 파마머리는……"
70) 일레인 김·최정무 편,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1~404쪽.
71) 캐서린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사, 2002, 1~300쪽.

www.kci.go.kr

는 민족적 블평등 관계를 은폐(소거)하기 위해 '양공주'가 동원되고 있다.

트랜스내셔널의 맥락에서 반공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군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양공주는 '필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에는 강한 반미가 표출되어 있다.

(가) 판문점에선 우리의 이 결사적인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공산측에 유리하도록 휴전회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굴욕적이며 패배적인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북진작전을 결행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만큼 전 국민이 자위권(自衛權) 행사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공산당에 굴복하기보다 차라리 주검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투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이 운동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굴욕적이며 패배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를 말할 수 없게스리 흥분시켰습니다.

똑바루 말씀한다면 실상 나는 공산당에 가는 분노보다 미군에게 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3~124쪽)[72]

(나) …'키 크고 싱겁잖은 게 없다드니 미국 사람들은 키가 커서 뒷심이 없나 보지' (126쪽)

…비겁한 것들! 비겁한 것들!

(다) …당신들은 울분도 없고 원통함도 모르느냐 (127쪽)

(라) 천하기 짝이 없는 것들 (132쪽)

위에서 보듯 강한 반미 시선이 작동되고 있다. 미군에의 분노가 더 큰 것은 미군이 공산당과의 결전을 실행치 않고 북진작전을 행하지 않기

72) 이하 텍스트는 최정희, 『끝없는 낭만』, 동학출판사, 1958본을 인용하였다.

www.kci.go.kr

때문으로, 반공주의가 반미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은 그간 친미=반공, 반미=용공이란 이분법에 갇혀 있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런 이분법과 다르게 '반공주의로서의 반미'를 드러내는[73]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는 반공주의적 담론의 지배화 속에서 친미적 인식과 미국에 대한 혈맹적 인식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시기였는데,[74] 이 소설은 1950년대 반공주의의 친미적 성격보다 반미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당대 상황과 매우 다른, '반미의 남한적 특수성'을 보여 준다.[75] 트렌스내셔널의 한 축인 반공주의가 남한이라는 트랜스로컬에서 '반미'로 활용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남한적 특수성은 이 소설의 반미가 분단을 야기한 '외세'의 측면보다 '통일'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로 전쟁을 종식하기로 결정한 미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휴전을 '한국에 대한 사형집행영장(the death warrant of Korea)이라 규정한 트랜스로컬－남한 정부 이승만[76]의 북진무력통일론과 상동적[77]이다.[78] 통일(분단)문제는 일본 및 중국, 대만과 다른 '남

73) 김복순,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반미의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21호, 2009, 한국여성문학학회, 60~63쪽.
74) 조희연, 「지배담론으로서의 빈공주의와 그 변화」, 조희연 편, 앞의 책 참조.
75) 김복순,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반미의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21호, 2009, 60~63쪽.
76) 차상철, 「이승만과 1950년대 한미동맹」,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347쪽.
77) 휴전회담 반대 궐기대회와 시위는 1953년 3월 30일 이승만이 휴전반대 성명("통일 없는 휴전 반대는 불멸의 원칙")을 발표한 후 4월 1일부터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4월 20일에서 5월 1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휴전반대 궐기대회와 민중대회는 7,500회, 지방의 대회는 540회, 동원인원은 800여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132쪽.
78) 이상의 내용은 김복순,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반미의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

www.kci.go.kr

한'의 냉전체제적 차이에 해당한다.

캐리가 한국에 파견된 것도 단지 군대 내 '전출'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캐리는 세계냉전체제 하의 미국의 전략을 올곧이 내포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차래나 배곤은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오로지 미군이 북진하지 않는 사실만 비판함으로써, 점령의 '필요성'이 은폐되는 동시에 '점령'이라는 민족적 불평등 문제가 은폐되고 있다. 이는 점령을 정당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배곤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자로서 이차래와 그녀의 혼혈 아들 토니에 대해서는 '민족적 수치'라고 강하게 비난하지만, 민족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점령'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토니라는 혼혈과 관련해서는 '인종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배곤을 위시한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비난은 오직 이차래가 '양공주'라는 점에만 주목되어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는 양공주라는 '나쁜 여자'로 환원・전유되면서 은폐・소거되고 있으며, 인종적 불평등 문제는 의도적으로 생산・표출되는 것이다.

한편 '영어 자본'을 소유한 이차래가 양공주가 됨으로써, 자본의 소유가 '주체의 조건'이 아닌 '타자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점[79] 또한 남한이라는 트랜스로컬의 특징을 드러낸다. 트랜스내셔널 주체/ 타자란 이차대전 이후 세계 냉전체제/ 한반도 분단체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체/타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세계냉전체제의 중심이 미국(소련)이라는 점에서 미국(소련)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내화하고 재생산 하는 주체가 트랜스내셔널 주체이며, 트랜스내셔널 주체로부터 대상화되

구』 2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0~63쪽.

7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141호, 200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85~308쪽 참조.

www.kci.go.kr

고 소외된 것이 트랜스내셔널 타자이다.[80]

이 소설은 트랜스내셔널 주체의 조건인 '영어 자본'을 소유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체 형성'에 기여하기보다 '타자 생산'에 기여하도록 장치하고 있다. 영어 자본이 이차래(및 가족)를 특권층의 일원으로 분류하는 하위계층적 풍토[81]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양공주로 호명함으로써 사회의 가치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의 시선은 영어 자본에 대한 균열을 만들어낸다. 영어 자본이 부정적으로 재해석됨으로써 기존의 긍정성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영어 자본이 양가적으로 해석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미디어나 공식적인 담론에서 점령군은 '희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고 미군 물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현저한 불일치를 보인 반면,[82] 우리의 경우 공식적인 담론에서나 미군 물자 모두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83] 차이가 있었다. 또 일본에서는 '팡팡'[84]이나 '온리'[85] 등 양공주들이 점령 당시에는 물질제일주의자와 소비지상주의를 비롯한 아메리카니즘의 주도자・체현자, 계층 및 신분 상승자, 성

80) 미국 중심적 세계냉전체제는 공산주의(사회주의)를 타자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 지구적 전일화 과정을 의미하며, 이 때 주체란 미국 중심적 체제 형성에 능동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을 가졌거나 전유할 수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차 대전 후의 신식민기에 있어 식민지/피식민지는 주체/타자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때 식민지/피식민지= 주체/타자의 구도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젠더적 차이라는 다양한 다층성이 개재해 있다. 물론 식민지 내에서도 식민성과 피식민성이 개재할 수 있다. 즉 식민지 계열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사한 식민성을 보유할 수 있다. 이 때 식민지 내부의 식민성/피식민성의 경계가 형성된다.

81) 일레인 김・최정무 편,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82쪽.

82) 요시미 슌야, 오석철 옮김,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 2008, 128쪽.

83) 김덕호・원용진 엮음,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1~464쪽.

84) 점령군을 상대하는 매춘부를 비하해서 일컫는 말이다.

85) only로, 특정 미군 장교만을 상대하는 매춘부를 비하하는 말이다.

www.kci.go.kr

의 해방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파이오니아[86]로 형상화 되다가 미군 철수 후에는 '구제"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로 표상되기에 이른다.[87]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의사양공주인 『끝없는 낭만』의 이차래마저도 '민족적 수치심' '불순한 존재'의 표상으로 형상화 되어 있으며, '영어자본'도 하위계층적 풍토를 만들지 못한 채 '트랜스내셔널－타자'로 연결되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도 양공주와 관련한 일본과의 차이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이는 일본과 달리 분단이라는 '트랜스로컬'의 조건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남한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본과 공통점도 있다. 점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한 '남성'들의 굴욕감을 교모하게 '은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미국과 한국(일본)의 젠더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미국/한국(일본)=남성/여성의 성적 은유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젠더적 관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일본인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켰지만,[88] 우리의 경우 이러한 성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후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과정에서 남성성 또는 이를 기초로한 내셔널 주체의 재구축 방식은 『끝없는 낭만』에서 보듯 양공주를 일본과 달리 '나쁜 여자'로 호명하면서 '불평등 정당화'를 구축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2-4. 팜므 파탈: 구원에 대한 젠더 불평등의 정당화/해소

『성녀와 마녀』(박경리)[89]는 전후 성 담론에 대한 작가의 답변이라 할

86)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126쪽.
87) 요시미 슌야, 오석철 옮김,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 2008, 127~138쪽.
88) '프레스 코드' 해제 후 '폭로본'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124~134쪽.

www.kci.go.kr

수 있다. 1950년대는 『자유부인』과 박인수 사건, 박부미 사건 등으로 이미 여성의 관능적 욕망이 어느 정도 일깨워져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분석되지는 못했고, 팜므 파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바로 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마녀 프레임은 사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할 때, 즉 기존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발생할 때,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동하기 시작한다. 유럽에서 마녀사냥은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심대한 도전이 있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전후 남성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일어났다. 위기를 돌파하려는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피지배층을 단두대에 세워 징치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모종의 신성을 지닌 '마법'이란 범주가 피지배층인 '여성' 범주와 결합하여 '금기' '사회불안'에 대한 '처벌'로 정당화 되는 것이다.

팜므 파탈은 저항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성들을 유혹해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 아니라 치명적 불행을 야기하여 파멸로 이끄는 여성들을 의미한다.[90] 우리말로는 요부, 악녀, 마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들로는 팜므 파탈의 복잡하고 묘한 뉘앙스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요부, 악녀, 마녀라는 이미지 위에 남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 성적 매력을 가졌으며,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독립성 등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91]

---

89) 1960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여원』에 연재. 2003.9.22.-2004.4.24.에 MBC 드라마로 재생산된 바 있다.

90) 이화진, 「팜므 파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1쪽.

91) 논자에 따라 팜므 파탈 유형을 조금 다르다. 김차애는 악녀형/신여성형/ 매춘부형/할리우드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김차애, 「한국영화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6, 1~84쪽), 나인호는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유형/남근적 여성형(남녀 양성적 여성)/모성애와 매춘부적 관능성이 혼재된 여성/남자 위에 군림하

www.kci.go.kr

이 소설은 그동안 성녀/마녀의 대립 및 마녀에 대한 징벌이라는 권선징악적 서사로 읽히거나, 결말 부분의 하란의 반란을 거론하면서 전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전복적 읽기의 서사[92]로 평가되어 왔다. 성녀의 기표인 하란은 한마디로 현모양처형, 성녀로 형상화 되어 있다. 남성에게 복종적이고 희생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시종일관 '여자답고 얼굴도 선녀처럼 예쁘고'(218[93]), 현숙한 부인(229), 좋은 내조자(230)로 그려진다. 반면 마녀의 기표인 형숙은 운명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나쁜 피'를 받은 요부(1장), 독부(301), 마녀(209), 마물, 탕녀(213), 사랑하면서도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329), 어떤 사내고 간에 망쳐 놓고야마는 이상한 습벽(213)이 있는 여자로 규정되어 있다. 형숙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마 이미지의 팜므 파탈이다. 형숙이 실제로 행동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요부·마녀로 덧씌워진다. 마치 독자에게 편견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까지 한다.

수영이 형숙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수영의 아버지 안박사는 그 둘을 갈라 놓으려 한다. 형숙에게는 '나쁜 피'가 흐르고 있어 수영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안박사는 젊은 날 형숙의 엄마 오국주를 사랑했었고 그 결과 거의 파탄의 낭떠러지로 내팽겨쳐진 경험이 있다. 파탄자가 된 안박사를 구원한 것은 아내가 된 수영의 엄마였다. 수영이가 아버지의 반대에 맞서 형숙과 결혼하고자 하지만 형숙이 그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자, 수영은 하란에게 결혼을 제의한다. 하란과의 결혼은 형숙에 대한 욕정을 가누지 못해서이고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반

는 공적 세계의 주인공으로 나눈다. 나인호, 「팜므 파탈과 새로운 남성성」,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72~285쪽.

92)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89~324쪽.

93) 이하 『성녀와 마녀』는 지식산업사, 1980년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www.kci.go.kr

발행위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하란은 두 번이나 겁탈의 형태로 수영과 관계를 맺게 된다. 숲으로 끌고가 능욕하고 상쾌한 웃음을 날리는 등 하란에 대한 수영의 행동은 왜곡되어 있었다. 결혼 후에도 수영은 여전히 '형숙이란 마법'에서 헤어 나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망가져 갔다.

형숙이 수영의 청혼을 거절한 것은 자신과 수영이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안박사의 반대라는 '장애'로부터 오는 열등감, 자기혐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다. 형숙은 반대를 '위악'으로 치장한다. 그것이 형숙이 안박사라는 반대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결혼은 형식'이라 외치면서 자유롭고 싶어 수영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수영이 함께 있자고 하자 '숙녀가 아닌 창부로 수영을 상대하려 한다'고 일갈하기도 한다. 형숙의 성적 자유는 찰나주의로까지 이어진다. 자신에게는 '미래도 과거도 없고, 이 순간만 있으면 된다'고 형숙은 절규한다. 서사적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작가는 형숙을 '운명적'인 '나쁜 피'로 몰고 가면서, 수영의 형숙에 대한 외골수 사랑을 부각시킨다.

결혼을 형식적인 것으로 본다든가, 성적 자유를 설파하는 부분은 형숙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부분이다. 안박사가 주장한 바 '나쁜 피'는 남한 가부장제의 혈연주의적 성격을 드러낸다.[94] 원래 팜므파탈은 '치명적 매력' '남성 지배권력으로부터의 일탈' '소유의 욕망'이 혼재되어 있는

94) 중국만 해도 예를 들어 자궁가족 등 남한의 가문 중심의 혈연가족과 다른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자궁가족이란 M. 울프(Margery Wolf)가 중국의 가족을 연구한 결과 제시한 개념으로, "남편의 집에 편입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젊은 여성은 점차 자신이 낳은 '핏줄'을 이 집안에 더해감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해간다."는 내용이다. 자궁 가족 내에서 남편은 남한에서처럼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 가족은 남성들의 가문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적인 가족으로서, 어떤 뚜렷한 이데올로기나 형식적인 구조도 갖고 있지 않다.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319쪽.

www.kci.go.kr

것이 보편적인데, 『성녀와 마녀』에서는 '나쁜 피'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나쁜 피는 단지 남성을 파멸로 이끈다는 의미 외에, 혈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나쁜' 혈통, 집안이라는 뜻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팜므파탈, 아프레 걸, 방탕, 일탈 등의 개념에 소비자본주의 의 개념이 은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양에서도 19세기 이후의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 사회를 여성적 속성으로 규정지으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란 여성에 의한 지배, 물질주의적 도시적 행복주의의 원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95] 전후 아프레 걸을 '근대 소비를 담당한 소비주체로 재평가'하듯이,[96]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소모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없애버리며, 쾌락으로 낭비하고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의 범람이라 할 때 '허영과 사치' '방탕' '소모' '낭비' '비절제' '범람'이란 개념은 1950년대 '로컬 남한'에서 미국 PX나 암시장에서 흘러나온 군수품 등 세계냉전체제 하 미국의 '소비'문화를 은유한다. 방탕은 '정조를 소비하는 것'으로, 쾌락은 질서를 소모시키는 것으로, 욕망 추구는 낭비로 은유되고 있다.

당시 PX물품은 정식 수입품도 밀수품도 아니면서 '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품 아닌 상품'이었으며, 큰 도시의 시장마다 부정 미군수물자는 마차나 트럭이나 아낙네의 치마폭 속에 숨겨져 궤짝으로 들어오고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좋은 물건 앞에는 '양공주'만 제외하고 '양'자가 붙었으며 '미제'는 '우리의 자아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신비한 마법의 손'이었고,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신형 무기였다.[97]

---

95) 토마스 퀴네 외, 조경식・박은주 옮김, 『남성의 역사』, 솔, 2001, 205~121쪽; 나인호, 「팜므 파탈과 새로운 남성성」,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90~291쪽.

96) 안서영, 「'아프레 걸'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1950년대 한국 소비문화」,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1, 2장 참조.

97) 김덕호・원용진 엮음,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126~132쪽.

www.kci.go.kr

소비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 및 그 극복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특히 제2차 대전 후세계체제 중심으로서의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냉전자유주의를 설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개척을 꾀하고 있었다. 소비문화의 핵심 범주가 팜므 파탈의 개념화에 은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트랜스내셔널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며, '나쁜 피'에 대한 역설은 혈연주의라는 남한적 특수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여타의 마녀 형상과 달리, 박경리는 여성의 몸에 결박되어 있는 부정적 기의들을 해체하고,정신/육체=남/녀=우/열=선/악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한다. 질서－희생－인내의 연결고리로 묶인 하란을 욕망으로 꿈틀대게 만들면서 호출하고, 마녀－요부－육욕의 방탕자로 호명해 왔던 형숙을 사랑의 순교자로 호출한다.

『여원』 연재 첫 호에 실린 「작가의 말」이다.

> 나는 여기서 청초하고 순결한 문하란(文霞蘭) 의 마음에 던져진 어두운 그림자를, 마성(魔性)을 지닌 요정과 같은 오형숙(吳馨淑)의 부란(腐爛)한 애욕 속에서 사랑의 순교자가 되는 최후를 그려보고자 한다. 나는 구태여 여성을 그리려 고집하지 않는다. 나의 의욕은 인간을 그려보고 싶은 것이다.
>
> (「작가의 말」『여원』, 1960.4, 65쪽)

위에서 보듯 『성녀와 마녀』는 단순히 성녀/마녀라는 이분법을 통해 마녀를 응징・처벌하고 성녀에 대한 찬가를 권고하는 권선징악적 서사가 아니다. 마녀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진실을 그리면서, 성녀로 하여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게 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은 '애욕' 등과는 다르게 '구원'으로서의 의미망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들에게 '사랑'은 모두 '구원'에 해당된다. 하란, 형숙, 수영은 물론이요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던 하란의 욕망을 이끌어

www.kci.go.kr

낸 허세준, 심지어 안박사에게까지도 사랑은 구원에 해당한다. 모든 것이 다 운명이고 필연이라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수영이 형숙과 재회한 후 '운명'을 부정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만든다'는 새로운 발견에 도달하게 된 것도 '구원으로서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견'이었다. 성녀에게도, 마녀에게도 사랑은 일종의 구원이었다.

'사랑'과 '이념'을 두 가지 '구원'의 방법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로컬 남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한국전쟁은 세계냉전체제 하의 '이념' 전쟁이었으며, 전후에도 '이념'을 '구원'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주제는 이후 『시장과 전장』(1964)에서 깊이 있게 천착되면서 형상화 되는데,[98] 기훈과 가화를 통해 '이념'과 '사랑'이라는 구원의 두 방법을 제시하면서 후자에 의해 전자가 통합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구원의 두 방법 중 '사랑에 의한 구원(시장)'이 진정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성녀와 마녀』에서는 아직 두 가지 선택지가 다 제시되지는 않고 '사랑'만 언급되어 있지만, '구원'과 관련한 나름의 모색을 제시하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도 '구원'의 문제는 후경화 되어 있고, '사랑'이 전경화 되어 있다. '구원'의 문제는 은폐되어 있으며, 서사적 정의를 통해 '나쁜 여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즉 '젠더'로 환원·전유되어 있다. 박경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란을 이분법적으로 끝까지 '성녀'의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운동하는' 인물로 그렸다는 점이다. 성녀/마녀=좋은/나쁜이라는 이분법을 동원해, '여성' 범주 내에서의 이분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나쁜이라는 이분법이 남성 등의 다른 범주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여성' 범주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앞

98)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현대문학의 연구』 6, 한국문학연구회, 1996, 388~439쪽.

www.kci.go.kr

의 세 경우와는 다른 부분이다. 즉 불평등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을 부정하고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남/녀 또는 성녀/마녀의 이분법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을 해체함으로써 이들 이분법에 깃들어 있는 불평등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원'의 문제를 '여성' 범주 내에서만, 그것도 '나쁜 여자'로 접근하는 방법은 여전히 남는다. 이 소설에서 남성들은 서사적 정의와 별 연관을 갖지 못한 채, '구원'의 문제설정에 닿지 못한다. 즉『성녀와 마녀』는 여성 범주 내에서 성녀/마녀라는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여성 내의 불평등은 해소하고 있지만, 남성은 오히려 '구원'의 문제설정에서 한발 비킨 존재로서 불평등을 드러낸다. '나쁜 여자'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남성젠더에 대한 불평등은 오히려 정당화 된 결과를 산출하였다.

마녀사냥(Witch hunt)은 중세 이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5세기에도 20세기에도 현재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박경리의『성녀와 마녀』는 성녀/마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면서 구원의 방법론으로서 마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녀론과 다르며, 전후의 트랜스내셔널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전복적 서사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적 특수성을 보여 준다.

3. 불평등 정당화의 '젠더 전유'

이 논문은 1950년대 소설 중 이념, 인종, 계급, 자산, 능력, 점령군 등을 그 자체로 문제설정한 소설은 거의 없는 반면, 나쁜 여자를 화두로 제시한 소설은 왜 그리 많은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0

www.kci.go.kr

년대 소설이 전후의 상처로 인해 루카치가 말한 총체성의 '아직 아닌(not-yet)' 상태를 형상화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1950년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자신의 시대를 성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러 범주 중 '나쁜 여자'를 다룬 소설만이 거의 압도적으로 생산되었다. 한창 떠들썩했던 '아프레 걸'도 '나쁜 여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1950년대 소설 중 당대를 다루면서 어떤 형태로든 아프레 걸을 등장시키지 않은 소설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1950년대 소설은 특히 '여성' 범주를 '나쁜'이라는 서사적 정의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을까.

기존 연구들이 '나쁜 여자'를 주로 '위기의 징후'로만 분석했던 데서 더 나아가, 본고는 '나쁜 여자 프레임'이 서사적 정의 및 '불평등 정당화'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상시화 된 예외상태'라는 남한적 특수성 및 세계냉전체제와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태까지 이들 연관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1950년대 소설에서 나쁜 여자로 지목된 대표적인 대상은 자유부인, 여간첩, 양공주, 팜므파탈(마녀)이었다. 여간첩은 좀 적지만, 자유부인과 양공주, 팜므파탈은 넘쳐나리만큼 많다.

『자유부인』에서 오선영과 최윤주의 '자유'와 '노동권'은 냉전자유(민주)주의적 해석 하에 '제한'되었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를 위해 민주를 제한하는 것이 냉전자유주의, 냉전민주주의인 바, 이는 '자유주의 실현'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는 '세계냉전체제'의 '제한적' '죽음정치'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주로 여성에게 가해졌고, 자유 및 노동이 '배제'된 여성은 '죽음노동' 상태의 '벌거벗은 생명'이었다.

『녹색의 문』에서는 남/여 간첩의 서로 다른 형상화 방법이 검토되었다. 남자 간첩은 이념, 국가, 영웅, 통일 전사 등으로 호명되면서 '국민국

www.kci.go.kr

가'라는 공적 장치를 위한 존재로 호명된 데 반해, 여간첩은 '남자'에 종속된 존재로서 '사랑' 때문에 간첩활동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여간첩은 애인, 엄마, 아내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함으로써 반공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트랜스내셔널 안보담론과 트랜스로컬 가부장제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공주의 경우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형상화 된 시기가 있었던 것과 다르게, '로컬 남한'의 경우 『끝없는 낭만』의 이차래와 같이 미군의 합법적 아내여서 일반 양공주가 아닌 경우에도, '민족적 수치심'으로 부정적으로 형상화 된 특징이 드러났다. '분단'이라는 '트랜스로컬' 요소가 강력하게 확인되는 지점이었다.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과정에서 남성성 또는 내셔널 주체의 구성이 '양공주'를 '나쁜 여자'로 호명하는 '불평등 정당화'의 방법을 주류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한적 특수성이 확인되었다.

『성녀와 마녀』에서도 팜므파탈은 허영과 사치, 성적 욕망의 비절제, 방탕과 소모 등의 소비자본주의적 요소와 '나쁜 피'라는 혈연적 가부장제적 양상이 결합되면서, 트랜스내셔널과 트랜스로컬의 결합양상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도 '구원'의 문제는 후경화, 은폐되어 있고, '사랑'이 전경화 되어 있었다. 서사적 정의를 통해 '나쁜 여자'를 처벌하지만 남/녀 이분법이 아닌 여성 내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여성젠더 불평등이 '해소'되는 한편, '구원'의 문제설정에서 남성을 비켜 있는 존재로 형상화 함으로써 남성젠더 불평등은 정당화 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이 소설에서도 불평등은 '젠더'로 환원・전유되어 있었다.

이처럼 1950년대의 '나쁜 여자 프레임'에는 트랜스내셔널/로컬, 보편성/특수성이 중층적으로 구현되어 있었다. 자유부인, 여간첩, 양공주, 팜므파탈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민족, 국가, 인종, 계급, 젠더, 이념, 신분, 자산, 능력 등 '불평등 정

www.kci.go.kr

당화'의 제 요인이 '나쁜 여자'를 통해 '젠더'로 환원・전유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민족, 계급, 이념 등의 문제설정은 소거되었다.

반공주의를 기치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섰던 1950년대는 민족, 국가, 인종, 계급 등을 다루지 못했고, 신분 범주는 대이동 중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자산 및 능력 범주는 뚜렷이 성장하지 못한 단계였다는 점이 고려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젠더 범주가 가장 손쉽게 '불평등 정당화'의 방법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즉 사회정치적 문제설정이나 경제적 문제설정, 이념적 문제설정 등이 그 자체로 접근되는 대신[99] '젠더' 범주로 '전유'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유부인』에서는 '자유' 이념 및 '노동' 문제가 '나쁜 여자'라는 젠더로 환원・전유되어 있으며, 『녹색의 문』에서는 '간첩'이라는 국민국가 경계설정의 문제 및 세계냉전체제의 모순이 '나쁜 여자'의 '사랑' 문제로 전유되어 있었다. 『끝없는 낭만』에서는 미군 주둔(점령군)의 문제가 '민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여자' 양공주의 문제로 환원되어 있고, 『성녀와 마녀』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팜므파탈'의 '나쁜 피'로 전유되어 있었다. 즉 자유 이념이나 노동, 국민국가, 세계냉전체제의 모순, 미군주둔(점령), 구원 등이 모두 '젠더'로 환원・전유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설정은 그 자체로 논의되지 못하고 '소거' 되었다. '나쁜 여자'라는 서사적 정의 방식의 '효과'는 실로 다른 문제설정(의제)을 집어삼키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았다.

이 과정에서 '나쁜 여자'는 자유・노동에 대한 젠더 불평등, 점령군에 대한 민족적 불평등, 세계냉전체제의 체제이념적 불평등, 구원에 대한

99) 1960년대의 경우, '사회정치적 해방'의 문제설정이 '경제적' 문제설정으로 대체된다고 보면서, '진보' 개념이 '경제적 발전'으로 전유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황병주, 「1960년대 경제 엘리트의 진보와 주체의식」, 박헌호 편저, 『백년 동안의 진보』, 소명출판, 2015, 152~154쪽.

www.kci.go.kr

젠더 불평등 등을 정당화 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즉 '나쁜 여자' 프레임은 여러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거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작동하였다.

불평등 정당화의 젠더 환원・전유 방법은 세계냉전체제 하의 '분단자본주의－가부장제' '예외상태' 사회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유용한 '방법'이었다. 세계냉전체제라는 보편성과 '분단자본주의－가부장제'라는 특수성이 중첩되어 있으며, 1950년대의 남한적 특수성을 보여 준다.

남은 문제가 있다면, 1960년대 이후에도 '나쁜 여자 프레임'이 '불평등 정당화'의 방법으로 활용되는지 아니면 변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동인을 분석하는 일이다. 아울러 '나쁜 남자' 프레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두하는지도 고찰하여, 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범주들이 어떻게 경합, 포섭, 길항하는지를 분석하고 트랜스내셔널/로컬 범주들과 연결되는 방식도 고찰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비교한다면, '불평등 정당화'의 방법적 제 특징이 드러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정비석, 『자유부인』 상·하, 고려원, 1985.
최정희, 『녹색의 문』, 삼중당, 1979.
최정희, 『끝없는 낭만』, 동학출판사, 1958.
박경리, 『성녀와 마녀』, 지식산업사, 1980.

2. 논문과 단행본

강성현, 「한국의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사회와 역사』 94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87~128쪽.
김덕호·원용진 엮음,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김동춘 외, 안인경 외 옮김, 『반공의 시대』, 돌베개, 2015.
김동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2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146~174쪽.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9호, 대중서사학회, 2003, 259~293쪽.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08. 하반기, 한국근대문학회, 203~234쪽.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141호, 200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85~308쪽.
김복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7~37쪽.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6, 7~48쪽.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나병철, 『은유로서의 네이션과 트랜스내셔널 연대』, 문예출판사, 2014.
나인호, 「팜므파탈과 새로운 남성성」,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272~285쪽.
박노자, 「또 하나의 회색분자, 간첩」, 『근대에 맞서는 근대』, 현실문화, 2014, 79~88쪽.
심희기, 「한국법의 상위개념으로서의 안보이데올로기와 그 물질적 기초」, 『창작과 비평』 제59호, 창비사, 1988.3, 264~286쪽.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 모음, 2013.

www.kci.go.kr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아감벤, 박진우 옮김,『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옮김,『정의의 타자』, 나남, 2009.
요시미 슌야, 오석철 옮김,『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산처럼, 2008.
우에노 지즈코, 나일등 옮김,『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웬디 맥엘로이, 서은경 옮김,『여성과 자유』, 나남출판, 2006.
이진경, 나병철 옮김,『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토마 피케티, 장경덕 옮김,『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피터 커스터스, 박소현 · 장희은 옮김,『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시아의 자본 축적과 여성 노동』, 그린비, 2015.

三浦玲一・早坂靜,『ジンダ-と「自由』, 彩流社, 2013.
湧井秀行,『ポスト冷戰世界の 構造と動態』, 八朔社, 2013.
有賀美和子,『フェミニズム正義論』, 勁草書房, 2011.

Marianne Hester, *Patriarchal reconstruction and Witch-Hunting,* London, 2002.
Marina grzinic・Sefik Tatlic, *Necropolitics, Ratialization, And Global capitalism,* Lexington Books, 2014.

www.kci.go.kr

Abstract

Bad Woman as Transloc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ways about Justification of Inequality
– focused on the novels in the 1950's

Kim, Bok-Soon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brought forward from the question, why were too so many novels that made issues of the bad woman, against the novels on race, class, labor, ability were not in the novels of 1950s.

Why the novels of 1950s, in particular way, was connected with narrative justice as 'bad' to the category of 'gender'? Upon investigation, 'bad woman frame' was implicated in narrative justice as 'bad', and also the problemes of justification of inequality. Made an additional remark, this paper examined 'bad woman frame' was connected with the perpetuating state of exception and global Cold War system.

The typical objects, pointed out 'bad woman' in the novels of 1950s, were madame freedom, foreigners' whore, female agent, femme fatale. They had something in common, appropriated as gender among several categories about justification of inequalities. In these processes, the issues as the categories of freedom, labor, nation-state, salvation were eliminated.

The ways of the Cold War-aesthetics were the easiest one which South Korean Novels selected. They proved som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ways as 'Cold War capitalism' and 'patriarchal society' in 1950s.

(Key Words: transnationalism, translocality, bad woman, madame freedom, foreigners' whore, female agent, femme fatal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narrative justice, Cold War-liberalism, woman's labor, salvation, perpetuating state of exception)

www.kci.go.kr

논문투고일 :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5일

www.kci.go.kr